

A :

사모펀드와 헤지펀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,  
그들은 직원들 월급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? 이런 질문 보내오셨습니다.

예를 들어서 친구중에 이름이 김대박이라고 투자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보  
죠.

그럼 친구들이

"야 대박아 네가 투자전문가니까 우리들 돈도 네가 좀 굴려주라.

일단 2,000만원씩 맡길테니까 여기서 버는 돈은 우리랑 너랑 반반씩 나누자.

너는 남의 돈 투자만 해주고 돈 버니까 좋잖아? "

이런 제안을 할 수 있겠죠?

그래서 대박이가 친구들 돈을 받아서 굴려주기로 했다면 그게 바로 사모펀드입니다.

어디에 투자하는지는 물론 대박이 마음이구요.

이 사모펀드는 법적으로 50명 이하의 소수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알음알음 돈을 모아서 투  
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.

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자기들끼리 투자하는 것이니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든 정부가 규  
제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.

이렇게 정부규제가 없다보니까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기도 하구요,

또 건물을 통째로 사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위험해 보이는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.

우리 귀에 익숙한 론스타, 칼라일, 조지소로스가 운영하는 컨텀펀드 이렇게 다 사모펀드인  
데요,


사모펀드는 규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?

규제가 없으니까 위험하고 요란한 투자를 자주 하고,

또 요란하다보니까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겁니다.

이 사모펀드의 반대말은 공모펀드인데요,  
우리가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창구직원들이  
"이거 하나 가입해 보세요" 하고 권하는 펀드들 이걸 다 공모펀드입니다.  
5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라서 여러가지 규제들이 많  
습니다.

그러니까 공모펀드는 비유하자면 정해진 코스만 움직이는 노선버스 같은 것이구요,  
사모펀드는 모임이나 단체에서 대절해서 가는 관광버스 같은 것이다.  
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

 그럼 헤지펀드는 뭐냐?

< 이 헤지펀드는 그때 그때 돈 될만한 건 닥치는대로 투자해서  
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화끈한 펀드들을 다 그냥 헤지펀드라고 부릅니다. >  
공모든 사모든 관계는 없는데, 이게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돈 되는 것에 투자를 하려면  
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 소수의 투자자가 돈 모아서 움직이는게 좋거든요?  
그래서 헤지펀드들은 거의 다 사모펀드들이고 또 사모펀드들 상당수가 헤지펀드들입니  
다.

론스타 펀드나 조지소로스 퀀텀 펀드를 어디서는 사모펀드라고 부르고  
또 어디서는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건 그래서 그렇습니다.  
돈이 모인 형태로 보면 사모펀드이고, 투자하는 스타일을 보면 헤지펀드니까요.

사모펀드는 초등학생이고 헤지펀드는 장난꾸러기 이런 말과 비슷해서,  
두 단어가 동의어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은 장난꾸러기이고  
장난꾸러기는 대부분 초등학생이잖아요?  
헤지펀드와 사모펀드도 서로 그런 관계입니다.

수익모델은 간단합니다.

돈 벌면 돈 말긴 투자자하고 7:3이나 8:2 정도로 수익을 나눠 갖습니다.  
가끔 뉴스에 보면 무슨 헤지펀드 매니저가 연봉으로 수천억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,  
원래 월급이 정해진게 그렇게 많은게 아니라 이렇게 위험한 투자에 성공해서 고객이란 돈  
을 나눠 갖기 때문에 그런겁니다.